

어린이 책꽂이



▶빨간 양털 조끼의 세계 여행=복잡한 세계 화를 쉽게 풀어냈다. 저자는 어느 날 자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빨간조끼를 입은 아프리카 난민을 보고, 그 조끼가 어디서 만들어졌고, 원료는 어떻게 구했는지 등 아프리카인이 조끼를 입게 된 과정을 추적하면서 세계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웅진주니어·1만원>



▶나는 개구리의 형님=소설가 이명랑씨의 신작동화.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파는 개구리 알을 키우는 영웅이의 이야기를 소재로 했다. 정성껏 개구리 알을 키우며 개구리박사가 될 만큼 개구리에 대한 책도 열심히 읽는 영웅이의 이야기를 유쾌하게 담았다. 단짝 다슬미의 고양이 사랑 이야기도 훈훈하다. <시공주니어·9000원>



▶가을운동회=동네 떠들썩하게 펼쳐지는 가을운동회. 하늘을 꽂 채우는 '와아' 함성소리, 청군과 백군, '우리팀 이겨라' 목이 쉬어라 외치고 달리지만, 정작 운동회가 끝나면 누가 이겼든 다 같이 어깨동무를 하고 웃는 마음 들쭉거리는 운동회 날 풍경을 담았다. 봄이와 여름의 따뜻한 이야기가 잘 녹아 있다. <사계절·9800원>



▶위기의 밥상, 농업=식량 위기의 시대에 우리나라 농업이 처한 현실과 농민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대안에 대해 생각해본다. 농업이 생겨난 유래와 우리 농업이 위기에 빠진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특히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공포와 우리 농업을 살리기 위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했다. <미래아이·1만2000원>



▶질문하는 꼬마 철학자=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디 있었는지, 왜 꽃을 꺾으면 안 되는지 등 세상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은 아이들의 질문을 통해 생각을 자라게 하는 철학책. 각 질문 끝에 격언, 속담, 철학자의 명언 등 다양한 인용구를 실어 생각의 깊이와 넓이를 더했다. <아이세움·1만3000원>



▶따로 또 삼총사=2006년 마해송문학상 수상 작가인 김암미씨의 두 번째 장편동화. 열두 살 세 친구인 은우, 형빈, 찬기의 풋풋한 우정 이야기이다. 세 아이의 고민과 상처를 서로 보듬어주는 모습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법과 가족, 친구 등과의 따뜻한 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알려준다. <창비·9500원>



▶창의력 뽐! 터지는 즐거운 미술감상= 미술 작품을 '재대로' 감상하는 법을 담았다. 현대 미술 작품을 포함한 여러 화가의 작품이 친절한 설명과 함께 실렸다. 특히 어렵다고 여기는 현대미술작품에 오히려 기발한 발상이 숨어있음을 설명해준다. 어린이들이 직접 화가처럼 활동할 수 있는 팁도 마련했다. <토요북·1만2000원>

▶지구촌의 불평등=이 작품은 선진국과 후진국, 인종차별 등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불평등'을 한 권에 담아낸 그림책. 커다란 그림과 간결한 설명을 더해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을 '지구 평면 구형도' 두 페이지에 걸쳐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전문 용어를 설명해주는 코너도 따로 마련했다. <그린·북·1만3000원>

조선 500년 통치철학 바탕엔 '民'이 있었다

조선의 통치철학

한명기 외 지음



최근 들어 '공정 사회'가 화두로 등장했다. 대통령직 집권 하반기 국정 핵심지표로 언급한 이후 사회 곳곳에서 공정사회 건설이 오히려 뜨겁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현행법을 어긴 인사들이 장관 후보로 올랐다가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해 탈락하고 현직 장관이 특혜시비로 자진 사퇴했다. 그야말로 통치철학 빈곤의 현장이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통치철학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한명기 명치대 사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5명의 필진은 '조선의 통치철학'을 통해 조선의 통치철학이 시대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책은 '통치철학'의 개념부터 정

리한다. 통치는 정치적 행위 이상의 그 무엇이라는 것. 지역과 성별, 계층을 초월하여 원활한 소통구조를 만들고, 나아가 법과 외형적 요소와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심리적 기제 등의 내면적 요소를 통해 심층적 의미에서 한 사회를 규율하는데 이러한 통치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가치관 또는 세계관이 바로 통치철학이라고 정의한다.

책은 조선사회가 겪은 주요 변화에 맞춰 다섯 시기로 구분하고 세종대왕과 정도전을 시작으로 조광조와 김인후, 유성룡, 최명길, 영조, 정조를 거쳐 고종황제에 이르는 지도자들의 통치철학을 살폈다. 역사의 변곡점마다 조선의 통치철학이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추적하여 통치철학의 근거를 이루는 핵심적인 요소와 시대적 추이를 포착하고 있다.

저자들은 개국공신 정도전과 수성기의 왕 세종으로부터 '민본사상'이라는 공통분모를 추출한다.

또한 성리학적 이상주의를 현실 정치의 답안으로 만든 조광조·김인후의 '지치'(至治·이상 정치) 운동을 소개한다.

이어 임진왜란·병자호란을 맞아 외교의 최전선에 섰던 류성룡과 최명길, 조선 후기

르네상스를 이끈 영조와 정조를 살피고, 러시아의 차르 체제를 따라 배우려던 고종의 통치철학도 분석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저자들이 내린 결론은 '민본주의'야말로 조선의 통치철학을 관통한 공통된 주제였다는 것. 조선은 비록 위계질서를 강조한 폐쇄사회였지만 백성을 중심으로 삼는 통치자들의 기본철학이 있어 그렇게 부정적인 모습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독일 보훔대학에서 학국학과장 대리를 지낸 백승중 교수는 "조선의 통치철학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거나 성리학 위주의 조선 사회를 향수하던 눈길로 바라보는 태도는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나간 것이라는 이유로 성리학적 이상을 폐기처분하는 모습도 정당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렇듯 저자들이 밝힌 조선의 통치철학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새 정치철학의 정립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통치철학의 성공 여부는 결국 '민(民)', 백성을 벗어놓지 않는 데 달렸다는 것은 오늘날의 리더들이 깊이 새겨볼 덕목이다. <1만95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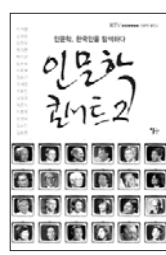


세종대왕. 이름은 도 자는 원정(元正)으로 정도전과 같이 민을 중심에 두는 통치철학을 견지했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

한국인 힘의 근원을 탐색하다

인문학 콘서트 2

이영희 외 지음



KTV 한국정책방송의 프로그램 '인문학 열전'의 주요내용을 엮은 '인문학 콘서트 2'가 발간됐다.

KTV는 인문학의 위기 시대인 현재 인문학 고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2008년 6월부터 매주 1회 '인문학 열전'을 방송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이의 주요 내용을 엄선해 '인문학 콘서트 1'을 출간했었다.

'인문학, 한국인을 탐색하다'라는 부제가 붙은 이번 책은 '한국인'을 주제로 한국인의 정체성과 고유한 창의력, 미래 한국인의 모습 등을 인문학적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영희 이화여대 명예석좌교수, 박이문 연세대 특별초빙교수, 김일규 서강대 명예교수, 김정문 명치대 교수, 하지현 건국대 교수, 장윤선 작가, 이종묵 서울대 교수, 최준식 이화여대 교수,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원로·중견 학자와 전문가들이 한국인의 힘은 어디서 오는지 살폈다.

놀라운 성과를 이룩한 한국인의 지력은 어디에 있는지, 한국인 고유의 창의력과 상상력은 어디서 온 것인지,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한국인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 등 흥미로운 담론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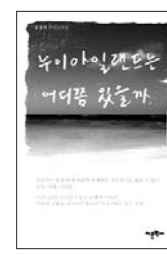
500쪽이 넘는 두꺼운 책이지만 풍부한 사진과 그림을 덧붙여 읽는 재미를 더했다. <미술·2만5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고독한 현대인들의 정체성 찾기

누이아일랜드는 어디쯤 있을까

김경희 지음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김경희 씨가 첫번째 단편소설집 '누이아일랜드는 어디쯤 있을까'를 출간했다.

보편적 삶의 참된 가치를 탐색하는 작품을 주로 써온 김씨는 이번 소설집에 '길', '물위의 집' 등 총 8편의 단편을 묶었다. 표제작 '누이아일랜드는 어디쯤 있을까' 등 가족, 인연, 친구란 이름의 골레에 억눌린 이들의 고통을 나지막이 울조된 서정시와도 같은 소설들을 만날 수 있다.

이처럼 김씨의 소설을 이끌고 있는 중심은 가정문제. 가장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가혹했거나 죽었거나 그런 양상이다. 이를 통해 온전한 것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깨지고 불안정한 가정사를 주로 다뤄 독자들이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고 친근한 느낌을 주며 동시에 감동의 깊이를 더한다.

소설가 유근호씨는 '남편의 가솔과 소식 두절, 남편을 찾아 나선 아내의 길 찾기, 산골짜기 속에서 방든 개들을 돌보며 자기정체성을 찾아가는 남편 앞에 국외자로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는 '길'은 고독한 현대인들의 한 전형적인 단상감 있는 구도 속에 드러내 보여준다'고 평했다. 여수 출생인 김씨는 광주대 문창과를 졸업하고 2003년 '소설시대'로 등단했으며, 2006년 교원문학상을 수상했다. <어문학사·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회적 냉대 속 흑인의 삶 조명

벌들의 비밀 생활

수용 키드 지음



2002년 출간 직후 뉴욕타임스 100주 연속 베스트셀러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디코타 패닝 주연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던 수용 키드의 소설 '벌들의 비밀 생활'이 번역·출간됐다.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1964년 미국 남부 지방을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아야 할 존재인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골레를 안고 살아가는 주인공 소녀가 혼란과 절망 속에서도 삶의 희망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담은 성장소설이자 오해와 상처로 얼룩진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과 화해를 그린 가족소설이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빛을 발하는 모성의 힘을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여성소설로서, 섬세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장과 짜임새 있는 이야기가 돋보인다.

엄마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실감에 빠져 있는 주인공 소녀 '릴리',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멸시를 받는 유모 '로잘린', 어린 시절 자신의 생동기 자매를 잃은 후 타인의 슬픔을 자기화시키는 '메이', 결혼식장에서 자신을 버리고 내뱉 상대 때문에 사랑을 믿지 못하게 된 '존' 등 사회적 약자라는 공통점이 있는 여성과 흑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이 그 사회와 문화, 개인의 역사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를 보여준다. <말리언하우스·1만30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강한 맛, 고품격 메뉴,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 * 출 : 연인, 친구, 가족 (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음): 직장회식, 계모임 (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음):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편의점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DINNER	16:00 - 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토·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 - 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 - 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엘리시아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예약문의 0621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 각종 모임 및 행사 예약(500석 완비)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출장뷔페 전문



아이엘리시아